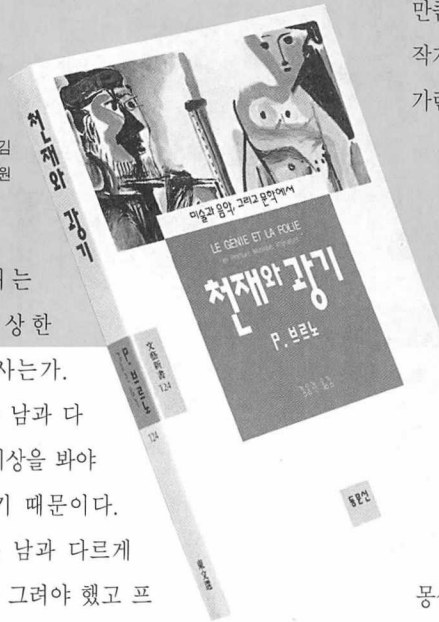


# 천재의 묘비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

P.브르노의 《천재와 광기》를 읽고

권택영 |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 · 문학평론가

김웅권 옮김  
등문선/A5신/330면/15,000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을 때나 고흐의 불타오르는 듯한 사이프러스 나무를 볼 때, 그리고 뭉크의 그림 〈외침〉을 볼 때 우리는 마음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뜨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예술 못지 않게 그들의 괴상한 삶을 떠올린다. 평생을 외로운 독신이었던가 오선지를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거나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등 그들의 생애는 평범한 사람들과 어딘지 다르다. 단 한개의 가설로 무수히 다른 이야기를 평생토록 풀어냈던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기에 대학교수가 되지 못했고 나치에 의해 자신의 책들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 천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

남다른 삶을 살기에 천재인가, 아니면 천재이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사는가. 광기는 천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면서도 한없이 느린 시간 속에서 때로 지독하게 우울하거나 까닭 없이 박해를 받거나 자살충동을 느낄 때, 왜 천재성은 주지 않고 우울함만 주는가 하고 원망을 해본다. 미국인들이 '파파'라고 불렀던 헤밍웨이는 절제와 냉엄한 용기를 소설 속에서 구현했고 상실의 시대를 견디어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의 자살은 오발에 의한 실수라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는 자살과 정신병의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언제나 자신에게도 그런 증세가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했다. 그가 그토록 냉엄한 윤리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천재는 왜 괴상한 삶을 사는가. 그들은 남과 다르게 세상을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잔은 남과 다르게 사과를 그려야 했고 프로이트는 남과 다르게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야 했고 라캉은 프로이트와 다르게 인간과 세상을 읽어야 했다. 그 이전 사람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진실일 때, 그것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독창성이라 부른다. 독창성은 일상에 묻혀 사는 평범하고 안락한 삶에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천재의 묘비명 위에는 참혹한 시련이 새겨진다.

《천재와 광기》의 저자인 브르노는 음악가, 미술가, 작가 가운데서도 유난히 글쓰는 이들이 자살과 정신병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니체는 세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버지니아 울프는 끝내 자살에 성공했으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의 죽음충동이 나타난 작품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일까.” 눈과 귀는 광기를 막아주는 것일까? 이 책에서 브르노는 두번이나 이렇게 묻는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가명은 작가에게 많고 음악가나 화가에게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그 물음에 답하면 어떨까. 작가는 숨고 싶다.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소리와 그림은 추상적이고 관객의 해석에 자유롭게 맡겨진다.

그러나 글은 자신을 알알이 드러낸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사물을 재현하기에 유추의 폭이 좁다. 화가도 음악가도 옷을 벗기지만 작가의 벗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작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창조적인 작가란 무엇인가.

## 몽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작가들의 비극

그는 누구보다 자살충동이 강하고 누구보다 유년기를 그리워하며 현실의 법과 질서에 숨막혀 한다. 그는 현실에 저항하며 몽상 속에 잠긴다. 그에게는 몽상이 현실이고 현실이 몽상이다. 어머니의 품안에서 결핍을 의식하지 못하던 시기에 누렸던 유희를 성인이 돼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몽상 속에서는 아름다운 유부녀도 내 것이고 잡을 수 없는 롤리타도 내 것이다. 몽상을 누가 말리는가. 평범한 사람들은 화살처럼 빠르면서도 한없이 느린 삶을 몽상으로 견딘다. 그러나 작가는 몽상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몽상을 현실에 옮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죽음충동이다. 몽상을 현실에 그대로 옮기면 죽음이다. 그래서 작가는 가장 자살충동이 강하다. 그는 쓰지 못하면 죽는다.

프로이트는 작가란 몽상을 현실에 맞게 위장하는 사람이라 했다. 이 위장하는 과정이 예술이고 남과 다르게 위장하는 것이 독창성이다. 위장을 너무 하면 독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덜하면 이름을 숨겨야 한다. 적절하게 남과 다르게 위장하는 것이 그의 피를 마르게 하고 그의 정수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작품은 고통을 먹고 자란 괴물이고 천재는 괴물을 낳는 광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광기에 매혹된다. 우울증과 자살충동만 주지 말고 천재의 광기를 함께 주소서, 아니면 바보의 만족을 쥐 늘 웃고 살게 하소서, 아니면 이 둘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방황하다가 혼적 없이 사라지는 슬픈 삶들에 무한한 축복을 내리소서.●